

‘2007 한국의 특허동향’

대기업 특허출원 감소, 중소기업 특허출원 가치제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의 ‘2007 한국의 특허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24,355건으로 2003년의 14,154건에 비해 72.1%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2006년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2005년보다 많은 1,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이 매우 활발해짐으로 특허를 출원하

는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기업은 2006년에 전년도보다 8.6% 감소한 63,291건을 출원하였는데 삼성계열사와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특허출원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 특허기술」 찾아준다!

특허청, 2008년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실시

특허청은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중개하고, 사업화 컨설팅 및 기술금융 알선을 지원하는 ‘수요기술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예비창업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의 구매 또는 라이선싱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무료로 알선·중개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하반기 수요기술조사에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기술수요자(대리인 포함)는 맞춤형 특허기술의 매칭을 위하여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술을 신청하면 되며, 기술이전 전문가가 「수요자 인터뷰」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진단하고 기술도입 컨설팅을 받은 후, 맞춤형 특허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기술수요자는 해외 우수특허기술의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해외 협력기관을 통해서 해외 우수특허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허기술경매 등을 통한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구매를 원하는 특허기술을 제시하면 대기업, 연구개발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 해당 특허기술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 특허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매칭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수요자와 연결해줄 예정이다.

수요기술 조사에 참여 시 특허기술이전상담회 및 특허기술 경매 참가기회를 제공하며, 기술이전과 관련된 각종 거래중개, 계약체결 및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화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여신심사를 거친 후에 기업신용에 따라서는 최대 100억 원(시설자금 60억 원, 운영자금 40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대출해준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손영식 과장은 “특허청은 급변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맞추어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이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예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51)에 문의하면 된다.

연구기록, 이제 e-연구노트로 해결한다

특허청, e-연구노트 개발·보급 추진

특허청은 연구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e-연구노트'를 금년 12월까지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발명을 완성하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 등을 기록한 자료로서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거나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구노트의 작성을 활성화시키

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대부분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어 서면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경우 전자 데이터를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공동발명

의 경우 연구자들이 각각 기록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면으로 작성 시 분량이 많아, 보관 및 정리가 힘들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어 연구현장에서는 e-연구노트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e-연구노트를 개발하고,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고객은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를 원한다”

(주)현대리서치연구소, 특허고객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특허청에 바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일률적으로 빠른 속도'에서 '고품질의 심사를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로 변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특허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변리사, 대학 교수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 방식으

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73\%p$ 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유지에 대해서도 느리다는 응답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여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더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 빠른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추진중인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68.3%가 찬성하고 있으며,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48.8%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누구라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만 첨부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확대하여 더 빠른 심사처리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늦은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심사처리시점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유예 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외국상표가 몰려온다

한 국을 포함한 82개 회원국이 가입한 마드리드의정서(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마드리드시스템)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된 외국상표가 국내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3

년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 후 현재(2008. 5. 31. 기준)까지 외국인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출원하여 등록된 국제상표는 27,758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23.4%로 급증하고 있는 출원율에 비례하여, 국제상표등록도 2004년도에 960건, 2005년 5,588건,

2006년 8,024건, 2007년 8,4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을 맞은 현재 외국인의 마드리드국제상표제도 이용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월부터 미국과 심사정보 상호 교환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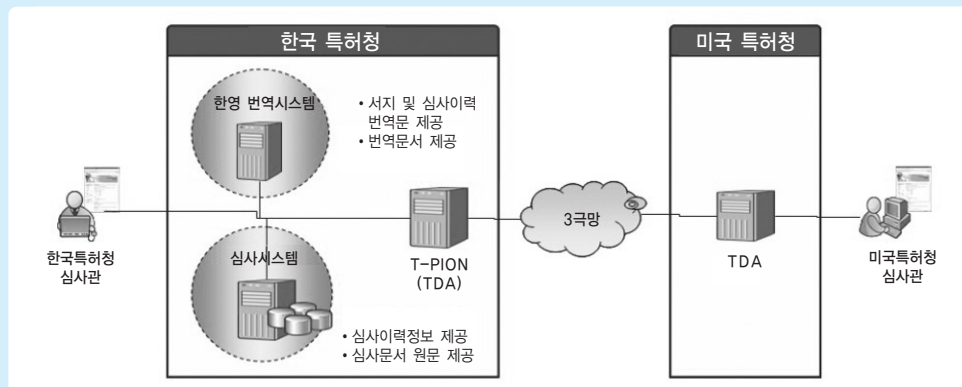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트 특허청은 오는 10월부터 국가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인 T-PION을 활용하여 미국 특허청과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두 국가에 공동으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교차출원 건에 대해 서로 심사결과와 선행기술 조사 결과 정보를 조회하여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심사정보교환 건수는 양 국간 교차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연간 3만 2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과 심사정보를 교환할 경우 미국의 선행(先行)기술 문헌에 대한 검색의 간소화가 가능해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낸 출원인에게는 적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심사정보의 한국어 원문 뿐만 아니라 기계번역된 영문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우리나라 특허기술이 미국 내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용어설명 및 시스템 구성도】
T-PION(Trilateral-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 국가 간 심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제공 특허청